

“KILL TIME trash의 공모작&추천작 상영회”의 상영 리스트 - 1 -

01	전수현	자폐의 나라	3min 30sec	2017	- 서양화와 학부 졸업전시때 만든 작업물 기록한 영상입니다 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02	윤재민	Life Of My Love	17min 45sec	2019	- 이 작품은 한 예술가의 일상을 일곱 트랙으로 구성된 바이닐 음반 컨셉의 필름이다. 촬영은 오시선이라는 작은 전시장에서 모두 진행 되었다. 100% 후반 작업으로 이루어진 사운드로 영상의 물리적인 배경이 연출되며 관객은 청취를 통해 각자의 이미지를 완성한다. 한 예술가의 두서 없는 일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03	Joseph Obel	Kundinyota (The Constellation)	4min	2022	- An excerpt from a theatrical performance about queerness, spirituality and the body politics. a coming of age story about coming out and embracing my intersections. // instagram @its_obel
04	Cody Lee	midwinter waltz	12min 6sec	2022	- This animated film was made during my short grad school era and long, exhausting, jaded designer era - i never wanted to make it look beautiful when the world's collapsing, might look amateur-ish, but wanted to make people think about relationships, climate change, anxiety that lie beneath their bed.
05	황해주	Too Much Love Will Kill You	6min 55sec	2021	- 흔히 쿼어 진영을 공격할 때 쓰이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는 슬로건을 전복적으로 적용하여 본 작업입니다.
06	Camille Simon Baudry	Our Merging Hearts	7min	2022	- Beyond the far landforms of earth's surface, symbiotic shivers resonates, troubling the chimerical boundaries of life and of the elements.
07	기조혜	로컬 에일리언 (Local Alien)	3min 36sec	2022	- 지구에 사는 우리 너희에게 보내는 러브레터_Oh, I'm an alien, I'm a legal alien_Oh, I'm an alien, I'm a local alien
08	신희정	발룻과 곤달갈 1	5min 8sec	2022	- 임신부의 비릿한 영상일기
09	이산마	내가 본 것 (私が見ること)	6min	2019	
10	유진	le la les corps	1min 19sec	2022	
11	강형석	natural	4min 1sec	2020	- 일본에서 생활했을 당시 코로나가 발발하였고, 높은 치사율과 강한 전염력에 나는 코로나를 절대 피할 수 없고 곧 죽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나는 곧 죽을 텐데 내가 만들어서 남긴 물건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다. 의미가 없다고 답을 내렸다. 하지만 나는 무언가를 표현하고 사람들과 즐겁게 해주는 일을 해 나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도 미련도 없는 지금의 상황이라 한들 표현을 하여 기록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에 대해 고민했다. 몸에 판화를 찍고 판화의 문양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영상에 담았다.
12	정진성	what you see is what you see-frank stella	58sec	2022	
13	Syden	다크모드	11min 3sec	2023	- 공항에 갈 땐 휴대폰을 화이트 모드(디폴트)로 해두시고, 하얀색 종이 위에 검정색으로 쓰인, 가급적이면 영문으로된, 글자가 왼쪽 정렬로 출력된 프린트물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다크모드는 가짜입니다.
14	Tiffany	i contain multitudes	3min 17sec	2022	
15	매연의 정령	스핀	28sec	2012	
16	Kinkybanana	Confessions Nocturnes	4min 55sec	2022	- Confessions Nocturnes, is a photo story project of LGBTIQ+ persons disclosing a sexual secret they confessed to the moon. It's a celebration of diversity in the multiplicity of bodies shapes, colours, gender identities, age, style etc ...
17	이승희	-ing! -ing!	1min 2sec	2023	
18	Lo Selina	La Nuit et Le Jour	8min 4sec	2022	- This essay film, "La Nuit et Le Jour," which means day and night, is a word play with the binary gendered attribute in french words - as the film illustrates my struggle of being a femme lesbian who likes feminine-dressed girls, in which I once tried to repress my aggressiveness towards the female, as a way to oppose the practice of butch lesbians who act in masculine ways, that may possibly be abiding heteronormativity - that a couple should always be constituted by a masculine man and a feminine woman. However, my intensive use of zooming in and out in my filming practice on a handy DV camera exposes my possible aggressive or masculine side, which hints at the coexistence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of an individual. I am still figuring out how to deal with this dilemma, but my memories of my crush keep haunting me. In the end, embracing the differences of others around us. Being fluid, not limiting oneself into a frame, is the essence of gender studies - which also teaches us how to love properly.
19	오진우	영상자료원 가는 길	28min	2022	- 시놉시스: 여기 영화를 보러 다니는 한 미친 남자가 있다. 오늘의 목적지는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영상자료원. 은평 터널을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 어둠의 수색 터널 속 멀리 영상자료원이 보인다. 그는 과연 영화를 무사히 볼 수 있을까? / 작품의도: 한국영상자료원으로 가는 길에 들었던 영화에 관한 생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었다. 그 결과물인 <영상자료원 가는 길>은 비디오 에세이의 확장성을 위해 영화를 인용하지 않았다. 대신에 수많은 영화 속 장면들을 훑쳐 리믹스하고 픽션도 가미하여 영화에 가까워진 비평을 시도해보았다.
20	이정식	움직이는 목소리	21min46sec	2021	
21	김망고	i	2min55sec	2020	**Trigger Warning: Dirrect advent of Blood, Violence, Description of Outing. After going through an outing, I found i self. **트리거 워닝: 직접적인 피, 폭력의 등장, 아웃팅에 대한 묘사. 한바탕 소풍을 다녀온 후, 나는 나를 찾았다.
22	콜렉티브 야광	줄넘기를 실패하는 18가지 방법 (18 Ways to fail jump rope)	2min49sec	2023	
23	mirrored fatality	VALE (mirroredfatality.com)	3min21sec	2022	- Surviving as full-time artists and farmers, it is extremely sacred when we aren't working and can spend quality time with one another and be completely present and immersed in the Earth. We hiked a bridge to nowhere and at the end were metal locks scratched with names to symbolize eternal love. We gazed at a vale in the middle forest mountains with a river vortex flowing to nourish the four corners of the farming town: Blanca, Murcia, Spain with its abundant lemons, grapes, olives, and oranges. Down below were dogs, baby sharks, ducks, butterflies, and murmurations. After a bath and ceremony to cleanse our(cells), VALE was born. VALE is a trans + queer tale honoring the world building created when moments of reciprocal, trusting, and sacred love for our lovers and the land we farm are prioritized and fought for.
24	강우솔	쁘르노-창고섬	1min17sec	2022	- 트위터에서 공유되는 '게이 야동'(불법 촬영물 제외, 트위터 계정주인들이 올린 개인 영상 혹은 제작사를 두고 만들어진 영상)을 작가 본인의 몸으로 재현한 영상입니다. 실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의 창고에서 페이스타임을 활용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25	이시마	KZPZ	9min9sec	2022	
26	루킴	hindsight II (2019)	5min51sec	2019	- (음악: 이혜진) 2016 제작한 영상에 2019년 음악가 이혜진에게 사운드를 의뢰했습니다. 이 영상은 수개월 촬영한 영상 중 광원을 선택해 연결한 것입니다. 가짜 태양 모음입니다.
27	김예은,김주희,이보영	face drop	6min21sec	2021	-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고있음에도 남의 삶을 부러워하기도 한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시선을 좋아하는 사람과 공유하면서 서로의 모는 것을 공유하고 싶어한다. 다른 사람의 삶을 훑쳐서 살아볼 수 있으면 어떨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의 시선으로 그 사람만의 세계를 살아보고 싶은 A는 그의 눈,코,입을 가져와 그의 세상을 바라보려한다.
28	임세영	Hopeful Labor	1min7sec	2019	
29	하지민	두꺼비근로	9min15sec	2022	
30	김채은	놀이	7min13sec	2013	
31	정윤영	데굴데굴	45sec	2016	
32	살친구(양승욱+허호)	이상한이상한꽃보기행사 소환수를 찾아서	1min25sec 12min40sec	2016 2022	- 이상기후로 디지털 아카이브가 불안정해지고 접근이 어려워진 세상에서 안그래도 기록되지 않았던 쿼어작가의 정보는 어떻게 남아있을까?
33	coknow	penguin is legend	16min9sec	2020	-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34	이마주	비둘기는 언제나 당신 곁에	30min13sec	2022	2009년 집비둘기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도시 곳곳에 비둘기 퇴치 용품이 설치된다. 말끔한 배제 끝엔 결국 누가 남을까.
35	데이	어른일기	26min	2018	

“KILL TIME trash의 공모작&추천작 상영회”의 상영 리스트 - 2 -

36	최영인	옆집의저건 That gun of the next door	8min5sec	2022
		- https://neolook.com/archives/20221231b		
37	박이크	뺨는 꿈	24min9sec	2021
		- 설난의 집에 해고 대리인이 온다. 이어서 청소 대행 업체가 온다. 설난은 불면증에 좋다는 양파를 사러간다. 축적된 이미지를 소화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38	이십칠	나만은 너와 나 우리의 절망을 기억해야 한다.	11min26sec	2020
39	선아	Hi I'm Seona, am I?	10min40sec	2021
		- 눈꺼풀에 상처가 났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40	배재연	채민이에게 (Dear Chaemin)	17min15sec	2020
41	Boram Momo Lee	Prostitute's handbag	19sec	2015
		Bucketman	5min10sec	2015
42	최장원	<방.광.P.>	3min48sec	2019
		- “너무 더운데다가 에어컨까지 고장난 여름날, 주인공은 에어컨 수리기사님을 부른다. 그런데 어라라?! 창문에 붙어있는 저건 뭐람??” 영상에서는 두개의 공간이 보인다. 안(주인공의 집)과 밖(퀴어문화축제)이다. 퀴어문화축제는 여러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서 이루어지며, 잠시 시스템더이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광장이 생겨난다. 그 광장의 밖에는 관심없는 시민들과 퀴어혐오집단이 와글거리고, 광장의 안에는 퀴어와 엘라이들이 와글거린다. 그 광장은 주인공의 밤 밖이지만, 그는 그 안에서 오히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무지개딜도라는 기념품을 가져온다. '자신이 무엇인지 의식하고 있지 않는 것'은 편안한 것이다. 퀴어들이 인터넷이나 상상속이 아닌 실제세계에 얼굴과 몸과 말을 가진 채 나타날 때, 자신의 세계에 퀴어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비퀴어들은 어찌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안'이란 '자신이 무엇인지 의식하고 있지 않는 공간'이다. '퀴어문화축제'라는 것은 퀴어들에게 '안'일까? 무지개딜도를 가져와 창문에 붙여놓은 것을 '너무나 편안해서' 까먹고 있었지만, 그 곳에 다른 인물(주인공이 퀴어인지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그 곳은 다시 밖이 된다. 주인공은 다시 한번 자신이 '퀴어'라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이 온다. 그것은 퀴어문화축제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밤 안에서는 혼자다. + 제작 과정에서 들려온 어떤 분의 의견으로는 좀 더 웃기게하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 그 딜도를 통한 성적인 긴장감이 (주인공에게서 부터 일반적으로라도 살짝 생기는 장면을 넣는 것은 어떠냐고 말하셨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별로였다. 게이인 주인공이 그 때 바꿨던 것은 자신이 무엇인지 의식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안'이었지 그저 음경과 고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시스템더 이성애자들... 존중은 하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기에 좀 꺼끄럽네요...”		
		<ider+기>	17min43sec	2021
		- 저의 <HIV 감염 7주년 축하 RSVP> 최장원 개인전 (탈영역 우정국 2021.08.14-08.30)에서 재생된 저의 감염기념일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들과, 전시 기간 중에 진행된 축하 파티 기록 을 합친 영상입니다. 드랙하고 공연한 분은 제가 아니라 드랙퀸 '정글'님입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더라구요) 저는 파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영생 營生 Young Sanctuary>	4min30sec	2022
		- 작가노트 중... "작품의 시간대는 먼 미래로, '성소수자 차별이 완전히 소멸된, 영광스러운 승리를 맞이한 시대'이다. 영상 작품에서 보이는 공간은 현실이 아닌 발할라/천국이며, 그곳에 가는 존재들은 당사자들과 엘라이들이 끝까지 투쟁하는 동안 곁에서 언제나 함께했던 '프라이드 굿즈'들이다. 그들은 이제 현역에서 은퇴했고, 영원하고 평온한 시공간에서 안식의 평화를 만끽하고 있다. 우리가 미래에서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 내었다면, 그들을 다시 불러내지 않아도 되는 안식의 시대는 얼마나 지속될까. 그보다 먼저, 작품에서 보이는 그러한 천국은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영원히 소수자를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 같은 거대한 승리를 만들어 내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꿈을 꾸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지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한한 몸과 유한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월세와 학비와 약값을 걱정해야 하기에 영원히 싸울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꾸었던 꿈의 형태를 기억해야 한다. 그 꿈이 도달하지 못할 미래의 것이고 이루어지기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 꿈의 광택과 빛깔과 촉감과 질감과 소리 들을 언제나 떠올릴 수 있도록 충분히 선명하게 그려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을,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전해 줄 수 있도록 온전히 간직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비록 그 천국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천국에 꽃 한 송이를 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걸로 될 것이다."		
43	보라키미	Pronouns	1min52sec	2023
44	한초원	겨울산책	1min44sec	2023
45	심재인	Only one word left	1min32sec	2022
		- 통증의 언어는 무한하지만 통증을 지칭하는 언어는 한정적인 결핍에 시달린다. '아프다' 라는 세 글자는 통증의 자세한 면모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알려주지 않지만, 우리는 통증을 묘사하려는 번번한 시도 끝에 결국엔, 언제나 '아프다' 라는 세 글자로 돌아오게 된다. 통증의 모양새를 더듬는 '아픈' 사람들은 그렇게 '아프다' 라는 세 음절 사이의 광활한 범주를 하염없이 맴돈다.		
		White Walls	3min48sec	2022
		현대 의학이 자랑스레 앞세우는 웃는 얼굴의 이미지는 우리가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고통의 흔적, 어쩌면 지금 이 순간조차도 어딘가에서 발버둥치고 있을 고통의 삶을 번두리로 몰아넣는다. 가시적으로 꾸며진, 하얗게 탈색된 미소들 속에서 현존하는 고통의 찡그림, 비명소리, 분노와 설움은 떠올려지지 못한 채 마음 한 켠에 영문모를 찢김함 남겨두고 스러진다. 고통에 시달리는 자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는 의학조차도, 실제로는 그들의 고통을 마주하길 꺼려한다. 고통의 자질구레한 면목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깨끗하고 밝은 배경과, 제자리에 열을 맞춰 선 의사들, 그리고 그들 얼굴 표면에 배치된 미소로 하얗게 표백된다. 그 곳에 통증과 질병, 악취를 풍기는 아프고 괴로운 삶들이 설 자리는 없다.		
		0-10	2min30sec	2021
46	김소희	밥사람	18min59sec	2019
		- 밥 잘 먹고 다니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땐 그 말이 너무 슬프고 무거웠습니다... 제 몸무게 만큼의 밥을 빚어서 만든 '밥사람'과 함께 지내는 브이로그입니다. 컴퓨터 속에서 저화질로 상해가다가 좋은 상영 기회가 생겨 공모해봅니다.		
47	임아진	An Alien's Journey To The U.S.A.	4min21sec	2017
		- 1. 한복을 입은 에일리언은 외계 행성에 살고 있다 (alien = 외국인을 뜻하는 법적 용어) 2. 어느날 몰아친 태풍에 휩쓸려 낫선 미국 땅에 떨어지는데.. 3. 그곳에서 흰머리 독수리들이 건네주는 social security card의 무게에 짓눌려 넘어지고 만다 4.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난 에일리언. 5. 하지만 등 뒤에 붙은 독수리는 끝끝내 눈치채지 못한다		
48	Chonad Yipeung	Aufenthalterlaubnis - permission to stay	3min10sec	2021
49	문서현	죽명	2min31sec	2023
50	Anna	수학자의 아침	3min27sec	2022
51	김수이	빨래	44sec	2021
52	도민주(창작그룹 MOIZ)	상상서울 : 광주	37min14sec	2022
		- “상상서울행 열차, 출발합니다.” 서울에 가야할 것만 같은 사람들의 모임, 서사모 광주지부 회원들은 '상상서울'로 향하는 기차 여행을 떠난다. 서울로 떠나면 펼쳐질 것만 같은 삶, 상상서울은 “지방 청년”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오아시스다. 이들은 여행을 통해, 서울에 과잉 투영하고 있는 자신의 욕망과 미래를 발견한다. 또한 그 상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도시의 기능에 대해 말한다. 기차는 다시 현실 속 광주로 돌아와야 한다. '상상서울'은 현실 광주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		
53	신재현	언어의 풍경-사랑 Text Scape-Love	3min4sec	2007~2019
		- 다양한 언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혀로 글씨를 쓰고 발화하는 단어들의 풍경을 보여준다.		
54	재훈	세 장의 사진	6min31sec	2021~
55	이비주	조깅	2min5sec	2010
		- #야외운동#공적장소와사적운동#아침에는 개운하게 // #건강한생활 #조깅 #매일아침		
56	성재운	재운	2min	2022
57	사랑해	차라리 내가 디딘 땅에 발을 붙이고	4min10sec	2022
58	정다혜	Cruiser	9min1sec	2020
		- 우리는 기억의 어디까지를 정확하게 불러올 수 있을까?과거의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흐릿해진다. 명확했던 이미지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잔상으로 우리에게 남고,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문득 찾아오는 자극과 내면의 신호를 통해 가라앉아있던 그 기억들의 존재를 때때로 감지한다. < CRUISER >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우리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기억편편에 대한 이야기이다. 불완전한 시간여행 시스템 “크루징”이 존재하는 근미래를 바탕으로, 여정에 실패하는 시간여행자와의 서신이라는 흐름을 통해 과거 기억의 끊임없는 재편성과 그로 회귀하고싶은 욕구에 대해 이야기한다. 크루징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과거기억의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크루징은 실패할 경우 수많은 기억들이 모여있는 과거 타임라인의 예측불가능한 한 지점에 던져질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갖고 있다. 영상의 초기 구상은 인지저하증(치매)을 앓았던 가족과의 대화에서 시작되었다. 과거 기억 속 시간을 끝없이 복기하고 재편하며 때로는 자신이 위치한 물리적 현실의 시간대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타임라인을 뒤집으며 시간을 당기고 밀고 움직이는 그의 화법과 사고는 명백하게도, 뇌의 단백질 이상으로 인한 인지저하라는 질병으로 정의되었다. 그는 과거에 갔었던 모든 곳에갔고, 그가 만났던 누구라도 다시 만났다. 어린이였다가 어른이었다가, 나는 볼 수 없었던 아주 먼 과거의 자신까지 나의 앞에 데려오고는 했다. 우리가 공유하는 현실에서 그는 환자였지만, 그는 그만의 시간대를 매 순간 아주 현실적이고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가 돌아가고자 했던 과거들은 그의 부름에 구전설화로 재현되었다. 질병이라고 했지만 그 회귀는 멈추거나 완치되거나, 아니면 '완전한 현실'이 되거나 하기는 어렵다. 자신의 아득한 기억을 감각하는 것의 직접적인 비유인 시간여행 시스템과 실패하지도 모른다는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과거로 돌아가보는 선택을 하는 인물은 위의 경험을 재구성한 서사이다. 이는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며 그리워하는 것의 슬픔에 대한 고민이자 지금은 떠나고 없는, 어디의 현실에도 발붙이지 못한 시간여행자에게 보내는 서신과도 같다. 영상의 흐름에는 2015년 서울로 이주해온 지인과 주고받은 엽서와 편지의 내용을 각색하여 사용했다. 2021 서울국제대안영상페스티벌 한국신작부문에서 상영하였다.		
		soundtrack - sirlinhu / salamanda cam - 황현진/박소정/오유경/주한솔starring - 김금원 title graphic - parkpano		

“KILL TIME trash의 공모작&추천작 상영회”의 상영 리스트 - 3 -

59	hanbikwak	Last WooHoo Crash.txt	5min37sec	2022
- 'Last~~crash.txt' 는 심즈4에서 오류로 인해 명령이 실행되지 않을 때 폴더에 무한생성되는 로그파일이다. 이 영상은 심즈4의 여심 커플을 플레이하며 녹화해둔 저장본을 편집한 것으로, 일상에서 맥락없이 사랑나누기가 전개되는 순간들 (마치 포르노의 급전개처럼!), 모드를 덕지덕지 붙여 발생했던 오류들을 남긴 기록을 엮어 만들었다. 레즈비언 커플의 열띤 움직임은 모델링 신체의 결합이 아닌 충돌이자 투과이며, 공갈이다. 오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어떻게든 꺼안고 있고, 디지털 땀과 한숨은 따뜻해보인다.				
60	Mingrui Jiang	The Wall	14min40sec	2022
61	원정백화점	Skill	12min	2018
62	김아침(이정윤)	<악몽의 축복 속에서 나는 행복해요>	13min38sec	2020
- 싱글 채널 비디오, 13분 38초, 2020 <I`m happy in the blessing of nightmare> single channel video 13min 38sec 2020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는 장소 바깥의 장소, 일종의 반공간이다. 사회 안에 존재하면서 유토피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실제로 현실화된 유토피아적 장소들이다. 대표적으로 수용소, 묘지, 박물관 등이 있다. 믿음의 헤테로토피아라고 볼 수 있는 교회도 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을 기준으로 신자와 불신자로 명확하게 나뉜다. 다만 그것의 진위는 죽음 너머에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종교의 교리가 누군가에게 너무도 감사할수도 억압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신의 은혜에 보은하지 못한다는 죄책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세상은 너무도 복잡한데 완전무결한 신의 의도가 있을 수 있을까? 예정된 벌이 진짜라면 무섭고 억울하면서도 문득 길을 걷다가 신의 섭리를 깨우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믿지도 불신하지도 않는다는 건 삶과 죽음의 사이처럼 애초에 불가능한 상태일지도 모른다. 지금, 여기 불신의 헤테로토피아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이것은 수용소의 창이거나 교회의 뒤쪽 즈음의 창일 수도 있다. 신자와 불신자의 경계에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상태는 완전하다고 믿는다. 몸, 시간의 유한함을 나타내는 잘 드러나지 않는 신체부위와 끈적하게 뒤섞이는 액체 괴물 등이 화면에서 액자처럼 역할한다. 누구나 부를 수 있게 개사된 찬양으로 시작해 교리에 기반한 사운드로 시작된다. 믿음과 불신의 중간지대에 대한 주장의 사운드가 고백하듯 들리고 다시 노래가 들리고 결말에 다다른 서사다. 반대되는 양쪽의 모두에게 자리를 인정받기 위해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서사를 구성했다. 동물 이미지는 신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개인에게 가해질 수 있는 집단적 믿음 자체의 폭력성을 시각화하기 위해 자학하는 이미지를 연출했다. 모든 것이 뒤엉켜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상태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사람들이 구원받음을 알게 해주듯이, 그것이 헛될 지라도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다.				
63	손경은	Dancing for	20min23sec	2022
- 댄싱포는 동물되기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커뮤니티, therian에게서 모티프를 얻은 작업이다. 그들의 불가능한 목표와 그를 향한 수행이 아름다워서, 그들과 같이 되고 싶지만 진심이라는 장벽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중첩되는 불가능성 사이에서 나는, 나홀의 밤동안 동물의 형태를 취한 채 그들과 어울리기 위한 사교댄스를 연습한다.				
64	zozo	~정상사회의 일원이기는 너무 어려워!~	37sec	2022
- "내면 수련 아티스트" zozo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zozo는 불행점수를 객관적으로 분별해주고 사회문화정치 전반에서 그에 따른 이득을 주는 "불행감별사"라는 초월적 존재의 도래를 예견하며, 사람들의 "불행수련"을 돕는 내면 수련 아티스트이다. 그런 zozo가 "정상사회의 일원"처럼 보이는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65	이민주	교차	3min34sec	2022
- 녹거나 스며들어 사라지지 않을, 그리고 모조리 사라질 사람들의 교차				
		공부도 못하고 못생긴	1min7sec	2022
- 우리 엄마가 말했어. 너는 공부도 못하고 못생겨서 시집가기 글렀어. 미안해. 사실 나 레즈비언이야.				
66	추연신	o round o의 잃어버린 시간	2min7sec	2023
- 요 근래 작업을 하면서 빈집과 폐가를 다녔다. 그곳에서 버려진 것들을 보고 그것들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고 그 상황과 현상들과 같아진다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과연 나의 존재는 무엇이 결정하는지 어떠한 원인을 도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협을 이야기하고 있다.				
67	고지성	여성 전용 상시 대기: 행위 1차	2min11sec	2023
"유흥중사자들 '부녀자'로만 보는 현행법상 남성接客원이 일하는 '호스트바'는 유흥주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처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끌려 나오면서도 '입 맞추고 손 꼭 잡고'..호스트바에서 핀 애뜻한 사랑??, 엠빅뉴스				
68	차형서	entrance(입구)	11min52sec	2022
- 집은 곳곳으로 흩어져서 비슷한 실루엣으로 나타난다. 메리와 엘레나가 내신 숨이 한 겹의 벽지가 되어 벽에 붙는다. 어딜 가도 출입문이 있어서 열기만 하면 집이 될 것 같다. 흩어진 홈 스위트 홈				
69	강예원	밤과 아이레, Be a fool	2min27sec	2019
- 그때의 우리가 흘러나온 영상작업이에요				
		밤과 친구들, 트롤리 키스	5min6sec	2019
- 무엇보다도 안전한 사람과의 터치와 키스의 매개가 누군가의 가방안에 있던 트롤리젤리였다는 게 희한한 일이에요. 이상한 밤에 이상한 기운으로 즉흥적으로 바로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70	이것은 책모임이 아니다	이것은 낭독이 아니다	5min33sec	2020